

귀임발령으로 인한 국내 편입생

(중도귀국 재외국민)

서류특례 입시 Guide Book

- 1장 : 귀임발령 시 편입 학교 선택 전략
- 2장 : 서류특례 주요 대학 전형방식 분석
- 3장 : 귀국 후 시기 별 서류특례 준비 방법
- 4장 : 영어로 수업하는 일본대학 (4월 입학)
- 부록. 외교/국제고 특례입학 (고입특례)



제작 : 세한아카데미 양재호 부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세한아카데미
양재호 상담부장입니다.

재외국민 자녀들과 그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
니다.

현재의 재외국민 교육시장은
선발하는 대학도, 교육을 하는 각종 기관들
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입시정보들도 모두
해외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기
준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령기간을 3년으로 최
소화 하거나 발령대상 연령을 낮추는 등의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고교를 졸
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상
황에 처 해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국제학교
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충분한 학업능력을
지녔음에도 학업환경의 변화로 본연의 실력
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진학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йм발령 자녀들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불리함 없이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입시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이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항상 시대 흐름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이제 상위권 주요대학들은 더 이상 띄어쓰기 하나, 영어문법 하나로 당락이 좌우되는 지필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하지 않습니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모태가 되는 서류종합평가라는 방식을 통해 다각도로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발방식에 대응하여 준비해야 함에도, 상업적 목적을 앞세워 학생의 본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으로 진로를 하향 조정하는 행태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는 비단 몇몇 학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 사회의 주요인사, 심지어 대통령까지 배출하는 서울소재 주요 명문대학들은

그 명성에 맞지 않게 아직도 학생들에게 교육환경과 무관한 지필시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컬학교에서 8년을 재학한 전교1등 학생이 외국어대 러시아어과에 국어 시험 때문에 진학 할 수 없었던 아이러니가 이를 반증합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상위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면 고교 3년의 활동을 고스란히 간직한 학교생활기록부나 수행평가가 포함된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대입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고 지필시험만 봐도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세한아카데미와 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학생 모두가 자신에게 걸 맞는 학사모를 쓰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잠재력을 인정받길 바랍니다. 부모의 귀임으로 학업환경이

바뀌는 학생들이나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가 단순히 입장의 차이로 불리함을 안고 가서는 안 되며,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의무를 가진 대학들의 평가방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장 모든 대학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타 대학의 지침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요대학들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학 스스로 우수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상업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필시험 중심의 평가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 선발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책무이행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학에 건의할 때입니다.

제 1장.

귀임발령 이후 학교 선택 전략

반갑습니다. 세한아카데미 양재호 상담부장입니다. 자녀의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한 해외근무 이후에 귀임발령으로 국내 편입을 하게 되는 학생들 (이하 중도귀국 특례생) 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편입학교’ 선택입니다. 편입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 유형을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학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고 (주소지 내 학군)	② 학력인가 국제학교
③ 외교 및 국제고	④ 2025학년도 이후

1. 일반고 편입 (공통사항)

일반고 편입 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은 ‘편입시기’ 결정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표준화 된 특례자격 요건에 따라 ‘중복’ 할지, ‘월반’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처음 해외에 나갈 때 월반을 했다면 귀국 시 월반 하게 될 때 전체 24학기(학제 차이로 인한 최

소 23학기)에 미달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편입 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시기를 잘못 선택한 예시 : 한국에서 초1부터 중학교 1-2학기 기말고사까지 마치고 12월에 발령이 나서서 해외에 갈 때 8-2학기부터 해외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 학생은 처음 해외에 갈 때 8-1학기(중2-1)에 대한 1개 학기 공백이 생깁니다. 이 학생이 11-1학기를 마치고 12월경에 귀국해서 일반고 3-1학기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고2-2(11-2)학기 공백이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 전체 이수학기가 22학기가 되므로 특례자격 요건이 미달됩니다.

간혹, 자녀의 한국나이에 맞는 대입을 위해 (예를 들어 2006년생이 2025학년도에 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월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계적으로 불리했던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아래처럼 고교 3년 6개 학기를 평가받는 것과 월반해서 4개 학기를 평가받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복과 월반의 학기이수 및 준비기간 차이 예시>

[중복]						
해외	10-1	10-2				
국내			고1-2	고2-1	고2-2	고3-1

6개 학기 성적
준비기간 3년

[월반]			
해외	10-1	10-2	
국내			고2-2 고3-1

4개 학기 성적
준비기간 2년

위 표처럼 월반한다면 3년의 고교과정을 2년간 압축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2년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반수나 재수를 해서 1년 뒤에 다시 입시를 치른다면 자칫 중복이수로 편입해서 1년 늦게 입시를 치루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는 보편적인 관점이며, **개인의 실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편입시기 결정 이전부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교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2-2학기까지 최소 1개에서 최대 3.5개 학기의 내신이 반영 되므로 등급상의 학교 내신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재외국민 전형이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현재, 대학들이 원하는 최소내신은 학교수업 충실히 하고, 시험공부 성실히 하는 수준입

니다. 후술하게 될 준비전략에서 상세히 다루
겠지만, 중도귀국 특례생들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 또는 비평준화
등 일반고끼리의 질적 수준에 따른 내신격차
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적인 결
론입니다. 즉, **수치상의 내신을 좋은 숫자로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고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신 취득이 수월한 일반고를 선택하는 공통 공식

- ① 국·공립이면서 남녀공학인 학교를 선택 할 것
- ② 가급적 강남8학군 또는 그에 준하는 지역을 피할 것
- ③ 교내 동아리 중 희망전공 관련 학술적인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 ④ 2025학년도 부터는 전략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것

위 항목 중 ③번 항목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
자면, 1학년이나 2학년에 편입 할 경우 상기한
대로 내신 등급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에 제공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작성지침에 비교과 활동 내용 기재를 간소화
하는 추세입니다. 즉, 학생부에서 **전공에 관한
흥미와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

는 동아리 활동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체능 계열을 목표로하지 않는 이상 ‘학술 동아리’에서의 활동과 기재실적에 따라서 모든 서류평가 대학에서 반영하는 전공적합성 항목의 평가실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신 좋은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등학교 일수록 수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인기 있는 학술동아리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선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8학군 소재라면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체육동아리나 예술동아리에 가게 되면 그만큼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스토리’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①,②번 항목을 고려해서 후보군에 해당하는 학교를 5개 이내로 줄이셨다면 그 이후 선택에 대한 우선 순위는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입니다.

구분	활동 부서	배정인원	인원	비고	구분	활동 부서	배정인원	인원	비고
학 술 문 화	교지편집부	별도모집	18		학 술 문 화	지리탐구반	3학년만		
	신문부		18			창의융합인재반		36	
	독서부		11			영문학 탐구반		32	
	iOS(미래과학탐구)		16			기초경제수학탐구반		21	
	생물부		19			전공저널(원서)읽기반		26	
	가온누리(교육학,심리학연구)1		11	1학년		수학 문화 탐구반		23	
	가온누리(교육학,심리학연구)2		14	2학년		과학시사토론편		29	
	과학시사부(LTS)		8			수학과학융합탐구반		31	
	이데아(수학동아리)1		11	1학년		수학탐구반		29	
	이데아(수학동아리)2		13	2학년		과학시사탐구반		30	
	화학부(CMT)		20			TED (영어강연 시청반)		27	
	물리부 1		8	1학년		방송부		18	
	물리부 2		16	2학년		실용음악부		9	
	Lawgic(시사법률부)		13			안다미로(봉사)1		8	1학년
	영자신문부		12		안다미로(봉사)2	12	2학년		
	영어모의국회부(MUN)1		11	1학년	생활체육부	16			
	영어모의국회부(MUN)2		14	2학년	아트앤디자인부1	9	1학년		
	STEAM융합부		8		아트앤디자인부2	11	2학년		
	도서부(리더스)		17		8Bit(미디어아트부) 1	9	1학년		
	세미콜론(컴퓨터동아리)1		5	1학년	8Bit(미디어아트부) 2	13	2학년		
	세미콜론(컴퓨터동아리)2		7	2학년	영미 영화의 이해	1,2 희망자	13		
	MEDICAL 해움(의학관련탐구)1		9	1학년	실습노작	요리부	14		
	MEDICAL 해움(의학관련탐구)2		11	2학년	청소년 단체	RCY 1	별도모집	9	1학년
						RCY 2		11	2학년
						한별단	1,2 희망자	4	

위 표는 서울소재에 한 일반고의 개설 동아리 목록입니다. (학교 이름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음영표시 된 학술동아리들은 그 이름만 봐도 학생부에 기재될 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바뀔 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지원 컨셉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서류특례 입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학교알리미’를 검색해 접속하면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본정보부터 교과운영표, 동아리현황 뿐 아니라 아래 이미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



일반적으로 3-1학기에 편입하게 되면 7월에 원서접수를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기말고사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 기한이 8월31일 이기 때문에 학생부 역시 ‘백지’에 가까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3-1학기 편입을 하면 사실상 국내고 내신 등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입시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세대 및 일부 대학들은 3-1학기 중간고사 종이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시결과에 영향이 있기도 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 일반고 편입 (인문계열)

중도귀국 특례생 중 진로방향을 문과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성적은 단언컨대 영어와 사회 교과**입니다. 非강남권에 국·공립 & 남녀공학 학교라면 국제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한 학생의 경우 영어 과목에서 1~2 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사회 과목은 사실상 암기과목입니다.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교육환경과 무관하게 성실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신 등급을 챙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두 교과목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단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2 등급대의 내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어와 수학 등에서 등급이 손실된다 해도 평균등급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에게 귀국 후 권장하는 최소 내신 등급은 4.5등급 이내입니다.

3등급 중반 사례				2등급 초반 사례			
과목	단위수	등급	원점수	과목	단위수	등급	원점수
국어	5	4	74~80	국어	5	3	80~90
수학	4	5	65~73	수학	4	3	80~90
영어	5	2	90~94	영어	5	1	94~100
사회	6	3	80~90	사회	6	2	90~94
평균등급		3.4		평균등급		2.2	

위 표는 강남 8학군 소재의 일반고(여고)에서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 실제 내신등급 계산 사례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신이 수월한 지역의 학교를 선택한다면 같은 원점수여도 위의 예시보다 좋은 등급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영어 교과가 90점만 넘어도 1등급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8학군 내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학원이 가까워서’ 또는 ‘명문고 인맥’입니다. 일반고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상위권의 서류특례 대학을 준비하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이나 ‘인맥’이 아닌, ‘최소수준의 학교내신’입니다. 부모님 세대와 달리,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최근에는 출신교가 사회생활의 이정표가 되어 주지 못합니다. 또한 길게 다녀봐야 2년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의 브랜드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내신을 대비할 학원은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굳이 강남/서초일 이유가 없습니다.** TOEFL이나 SAT,

AP등은 주로 방학을 이용하며, 학기 중에 매일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1-2. 주소지 내 일반고 편입 (자연계열)

중도귀국 시 이과 학생들이 문과에 비해 불리한 점

- ① 수학내신의 범위가 더 넓음 (확통/미적분/기하 등)
 - ② 물리, 화학 등 암기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과목의 어려움
 - ③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과 커트라인
- ※ 가이드에 앞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과 선택에 신중함을 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귀임으로 편입을 하던 해외에서 졸업을 하던 이과생들에게 수학/과학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해외 현지에서도 반드시 한국수학을 공부 해 두어야 합니다. 이과생들은 국내 편입 이후 문과생들과 달리 영어, 수학, 과학 등 3가지 과목의 내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중 특히 **과학과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편입 첫 학기에 응시하게 될 중간 및 기말고사의 과학교과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보통 고교 3년 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3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해외의 국제학교는 과학을 최대 2과목 정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구과학은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은 흥미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좋은 내신을 취득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서류특례가 아닌 지필 중심의 대학에 수학과 영어시험만으로 진학한다고 해도, 합격 이후의 대학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지필시험만으로 공과대학에 진학한다면 절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대학에서 함께 공부할 학우들은 과학고, 자사고 출신 또는 일반고 최상위권의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대학은 당연히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강의를 하게 되고, 실제로 지필시험으로 공과대학에 합격하고도 대학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자퇴 후 재수를 하는 학생들을 수 없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과생이면서 귀임을 앞두고 있다면 수학과 더불어 편입 학기에 배우는 과학

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이과생들은 ‘학교 알리미’를 통해 편입할 학교를 보다 빨리 선정해 두시고 교과과정에 맞는 수학/과학 준비를 선행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외에서도 EBS 인강을 통해 편입학교의 교과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BS 교과서 진도특강’ 검색)**

간혹 **자사고/자율고 또는 과학중점학교** 등이 이과 진학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대 권장 해 드리지 않는 학교** 유형입니다. 자사고/과중고는 우수한 이과 학생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과의 내신등급 경쟁은 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뛰어 드는 꼴입니다. 앞서 서술했듯 중도귀국 서류 특례 입시는 통계적으로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편차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8학군의 S여고나 명문 자율고인 H고 등에서 서류특례 최상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2. 학력인가 국제 학교 편입

귀임 전, 해외에서 국제 학교에 다닌 학생이라면 문·이과를 막론, **국내소재 학력인가 국제 학교 편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국사/국어 과목을 연간 102시간을 수료**하면 ‘국내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국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단 표를 참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 점은 국사/국어 102시간 수료를 해야만 국내 학력 인정이 되고, 특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학교들은 학력인정을 위한 국사/국어 수업을 11학년 1년간 운영합니다. (학교별 확인 필수) 이 경우 10학년을 5~6월에 마치고 귀국해서 8~9월에 11학년 시작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11학년 중간 혹은 그 이후에 편입하는 경우라면 국제 학교 편입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해외 현지에서 졸업하는 것이 유리)

학교명	교과과정	소재지	학비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AP	인천	약 25,000\$
채드윅 국제 학교	IB	인천	약 30,000\$
대구 국제 학교	AP	대구	약 26,000\$
KIS Jeju	AP	제주	약 34,000\$ (보딩 포함)
NLCS Jeju	IB	제주	약 36,000\$ (보딩 포함)
브랜섬홀아시아	IB (여학교)	제주	약 40,000\$ (보딩 포함)
세인트존스베리	AP (2016개교)	제주	약 41,000\$ (보딩 포함)

물론 일반고에 비해 높은 학비가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상 SAT외에는 학교 내의 교과과정으로 준비 가능하므로 **기타교육 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학교는 국내에서 취득한 AP/SAT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대학은 모두 가능) 하지만 위 국제 학교들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제출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서술했듯 국사와 국어를 연간

102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편입 전 반드시 각 학교들에서 해당교과를 이수하여 학력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각 학교 들 중, 현재 중도귀국 특례생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학교는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학교 내에서 국내대학 진학에 관한 이해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해외에서 IB를 했던 학생이어도, 영어로 된 AP과정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고 내신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일입니다. 후술하겠으나, 설령 일반고에 편입 했어도 서류특례를 위해 AP와 SAT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따로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 주실 경우 자세한 설명을 부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가 국제학교에 편입하는 전략은 특히 이과 학생 일수록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3. 특목고(외고/국제고) 일반과 (문과한정)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전략이지만 외교나 국제고에 편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외교는 보통 영어 또는 제2외국어를 전공어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 OO외고 중국어과에서 공부한다면 이수단위가 가장 높은 영어와 중국어 2개 과목에서는 좋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은 특례나 수시를 막론하고 외교 출신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입시 데이터 상, 외교 편입 후 연·고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평균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중반의 내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외교는 보통 최상위권으로 분류되는 D외고나 H외고가 아닙니다) 물론 외교에서 3~4등급대의 내신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해외 체류지역의 언어를 전공어로 수학할 수 있는 외교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나 자사고는 정시보다 수시의 실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동아리나 각종 교내활동을 기반으

로 ‘훌륭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라는 노하우가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영어내신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특목고 전성기인 2015학년도 이전의 학생들과는 학업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신경쟁에 지레 겁을 먹고 특목고 편입을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외고 국제반은 IB과정을 제공하
긴 하지만, Final Exam을 11월에 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7월에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 특례입시에서 매우 불리한 편입니다. (원서접수 시 IB성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기외고 IB 국제반은 적합한 선택지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국내고교 편입 Guide

< 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 > (2023년 6월 교육부 배포자료)

구분	성취도 정보		서열정보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 (9등급)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x	○	○
전문교과	○	A·B·C·D·E	x	○	○	○

*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

※ 공통과목 중 '한국사(성취도 5단계)' 및 '과학탐구실험(성취도 3단계)'은 석차등급 미산출/ '체육·예술' 성취도 3단계, '교양'은 P(이수) 적용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위와 같이 대신 평가방식이 변경됩니다.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석차9등급제, 고2/고3은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위 표에서 말하는 공통과목은 고1에 이수하는 과목들에 해당하며, 고2/고3에는 일반/진로/융합 등의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고1은 상대평가, 고2/고3은 절대평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부터 국내고교에 편입 시 가급적 고1에는 편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일반고 편입전략에서 다뤘던 ‘8학군 및 자사고를 피해서 주소지 내 국공립 남녀공학’을 선택하는 전략과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립/공립/자사고 등의 구분을 두지 말고 ‘학교알리미’를 통해 내신 성취도에서 A/B의 비율이 높고, D/E의 비율이 최대한 낮은 학교를 선택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검색 방법 : 학교알리미 > 학교이름검색 > 공시정보 > 학업성취사항 > 교과별 학업성취)

쉽게 말해, 중간/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낮아 높은 성취도 취득에 용이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고교들이 고2,3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입정책상 수시의 비중이 여전히 절반 수준인 만큼 **가급적 수시에 대한 진학실적과 이해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 할 수 있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또는 일반 사립고 등이 이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현재까지는 확률 상 예측하는

것뿐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가이드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라오며,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모든 학교들이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서 중도 귀국 고교편입의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로 전략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필형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하위권 학생이 아닌 이상 굳이 학원통학이 용이한 위치의 학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학년도 고1이면 대입의 경우 2028학년도가 될 텐데, 그 시기에 지필로 선발하는 대학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외교/국제고 역시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이제 두 학교 유형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부 가칭 국제외국어고) 문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외교/국제고에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교/국제고는 2025학년도 이후 일반 학생들에게도 다시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입이 가능한 T.O가 쉽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장.

서류특례 10개 대학 전형방식 분석

서류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크게 7월에 지원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9월에 지원하는 수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및 전형 별로 선발 취지나 인재상, 그리고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가이드에는 대학별 입시요강을 기준으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과 전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모집인원이나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전형 별 입시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외국민 전형은 많은 대학들이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서류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 연세/고려/서강/성균/한양/중앙/이화여/한국외/국민/숭실/부산/한동/가천 등이 지필없이 서류로 선발)

1.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심층면접
1단계	100%	-
2단계	70%	30%

특이사항
① 10매 이내의 활동증빙서류 제출 가능 ② 교외 수상/활동 제출 불가 (공인시험성적은 제출 가능) ③ 전공 별 추가합격 실시 ④ 한국에서 취득한 모든 공인성적 제출 가능

고려대학교는 중도귀국 특례생들의 합격 사례가 많은 학교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특히 귀국 이후에 한국에서 취득한 서류를 모두 인정하며 최대 10건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2.5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전공 관련 실적도 필수입니다. 제시해 드린 내신등급 가이드는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시이며, 지원전공이나 제출서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전공별 성적편차가 매우 큰 대학입니다. 1단계 합격 이후에 진행되는 심층면접의 경우 일반적

으로 8월에 실시되며 중간고사 이후 6~8월 정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세한아카데미는 6월부터 고려대학교 서류준비 컨설팅 및 문·이과별 심층면접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심층면접
1단계	100%	-
2단계	60%	40%

특이사항
① 국내에서 취득한 AP와 SAT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② 수상실적 미반영 (장학증서 등은 제출 가능) ③ 단과대학 단위로 통합하여 추가합격 실시 ④ 문/이과 통합 심층면접 실시 ⑤ UIC계열 지원 시 영어 심층면접 실시

연세대학교는 특이사항 ①번 항목대로 국내에서 취득한 AP나 SAT실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학년에 편입 한 학생들은 **학교내신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고교를 선택을 했다면 오히려 유리한 대학이지만, 내신 받기 힘든 학교에 잘못 편입해서 아예 지원도 못해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귀국한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연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성적을 특히 중시합니다. 1,2학년 편입인 경우 일반고 기준 2.0등급 이내(사실상 1등급대)의 내신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 재학 시 취득한 SAT

나 AP실적은 인정합니다. 만약 귀국 전 해외 재학 시 취득한 SAT가 1450점 이상이라면 적극적인 제출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단과대학 별로 추가합격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전공에서 등록포기가 발생하면 상경대학 내에 그 다음순위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한 응용통계학에서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는 논리입니다. 학과별이 아닌 단과대학 별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세한아카데미는 6월부터 연세대학교 컨설팅과 더불어 통합 심층면접을 대비하는 강의와 비교과활동기록표 및 실적점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강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100%

특이사항
① 학교생활보충자료 A4 10페이지 이내, 온라인으로 PDF 제출 ② 학교생활보충자료에 활동명(50자)와 활동내용(300자)를 기재 ③ 문·이과별로 통합하여 추가합격 실시 ④ 다전공제도 및 연계전공 제도 운영으로 전공의 제한이 적음

서강대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도 않고, 일정 배수를 1단계에서 걸러내지도 않기 때문에 연·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전 혹은 중심 지원으로 함께 지원합니다. 그래서 추가합격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대학(한양/성균) 중 선호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모집인원에 위촉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권장 하는 대학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학교생활보충자료에 최대 10건의 활동에 대해서 각각 300자 분량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소개서 수준의 글자 수입니다. 다전공 및 연계전공제도와 별도의 활동내용 설명 등의 이유로 **서강대**

만의 제출실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100% 외에 다른 평가가 없는 만큼 제출서류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성적이라도 서류구성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추가합격을 전공이나 단과대학별이 아닌 문·이과 별로 나눠서 통합으로 실시하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3.2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아카데미에서는 6월부터 서강대학교 지원에 매우 중요한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100%	
2단계 (의예과)	서류 70%	면접 30%

특이사항
① 공인어학5개, 표준화학력실적5개, 기타활동5개 제출 ② SAT/AP/TOEFL 등의 공인성적 반영비율 매우 높음 ③ 계열모집 단위로 통합하여 추가합격 실시 ④ 학점에 의한 2학년 전공 선택 시 재외국민은 별도 심사

계열모집 단위 별 소속 전공	
인문과학계열	유학·동양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계열	행정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가족학, 아동·청소년학, 경제학, 통계학
자연과학계열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융합생명공학
공학계열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 건설환경공학, 시스템경영공학, 나노공학

성균관대학교는 상기에 기술한 계열모집단위에 지원해서 합격할 경우 학점에 따라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따로 학점심사를 하기 때문에 학과 선택이 훨씬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과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며 자연과학계열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생명계열이 포함되어 있어 소위 말하는 ‘낮은과’ 찾기가 매우 어려운 대학이기도 합니다.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GPA, 내신등급), 공인성적(SAT/TOEFL/AP) 등의 중요도가 상당히 큰 대학입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서강대, 자연계열은 한양대와 비교되는 대학만큼 활동이 약해도 공인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3.0 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아카데미는 6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서류준비 컨설팅 및 전공별 인성면접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
1단계	100%	(5배수)
2단계	80%	20%

특이사항
① 1단계 합격 시 지원자격 관련 서류 제출 ② 2단계 평가항목 : 활동 및 수상실적 중심의 평가 ③ 기타활동 증빙서류는 15건 30페이지 이내 제출 ④ 국제학부 지원자는 기타활동증빙서류 영어로 작성 ⑤ 타 대학 대비 입학 이후 전과(전공변경) 수월한 편

한양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인문/자연계열의 선호도 차이가 큰 대학입니다. 특히 공학계열에서 인기가 높은 전공의 경우 지원자 평균성적이 연고대와 큰 차이가 없는 편입니다. 지원자 중 모집정원의 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여 2단계 평가 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까지는 고려대/성균관대와 유사하며, 2단계부터는 연세대/서강대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4.0등급 이내, 공학계열은 2.5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각각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

장합니다. 고교졸업 이후에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수생들에게 다소 유리하지 않은 대학이며 전공별 선발이 아니므로 ‘낮은 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한아카데미에서는 6월부터 한양대학교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전형방법
인문/자연	서류 100%
의예	1단계: 서류100% / 2단계: 1단계60% + 면접40%

특이사항
① 학업능력입증서류 최대 10매 이내 제출 ② 교내활동서류, 표준화 학력입증서류, 어학 증빙서류, 기타서류 ③ 학업능력입증서류 각 건 별 활동내용(50자)를 기재 ④ 전공별 선발: 공공인재/미디어/사범/화공/기공/약학/의학/간호

중앙대학교는 최대 10개의 학업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내·외 활동을 모두 제출 할 수 있으며, 고교졸업 이후의 실적 역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사회통념상 인지도가 서류특례형 대학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므로 아주 뛰어난 성적의 학생이 아니라면 무조건 지원범위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필시험으로 선발하는 중위권 대학들 보다는 높은 선호도의 대학입니다. 통계적으로 **중앙대는 Score의 높낮이 보다 지원전공에 대한 진정성에 평가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지원한 전공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앞뒤 없이 일단 붙고 보기 위해 지원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그만큼 원서지원 전에 어떠한 활동을 해왔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을 느끼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자기소개서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전공에서 SAT 1480점의 학생이 불합격하고 1350점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어차피 Score가 뛰어난 학생들은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고, 합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중위권 성적이기 때문에 Score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간에 휴학이나 자퇴 등의 결원발생 없이, 4년간 중앙대학교를 어떤 마음으로 재학할 것인가에 선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

됩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4.5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SAT, AP
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아카데
미에서는 6월부터 중앙대학교 지원에 매우 중
요한 제출서류 점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7.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예정)	100%

특이사항
① 평가항목 : 학업역량 30% + 진로역량 50% + 공동체역량 20% ② 캠퍼스 간 / 전공 간 성적편차 매우 큰 편 ③ 가급적 TOEFL 등 공인영어성적 필수 제출 권장 ④ 활동증빙서류 12건, 항목별 제목20자 + 내용100자 기재

전통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학입니다. 어문계열 외 사회계열 역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기/비인기전공의 선호도 차이가 매우 큰 대학입니다. 또한 수시전형과 달리 재외국민전형은 전공별로 '최대선발인원'이라는 모집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전체 41명 선발인원 중 각 전공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별 최대선발인원을 정해두고 대학의 선발결과에 따라 극단적으로 어떠한 전공은 0명 선발일수도, 어떠한 전공은 13명 선발 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전략적으로 합격만을 위해 비인기 전공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영어계열 / 사회계열 / 기타언어계열 등으로 나누어 본인의 실적에 따라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 실적에 따른 전공 선택이 가장 까다로운 대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대학 특성상 높은 공인영어성적의 평균치가 예상됩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5.0등급(서울 캠퍼스)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각각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아카데미에서는 6월부터 한국외대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100%

특이사항
① 기타서류 총 10건 15page 이내 기재 및 제출 ② 평가항목 : 고교 학업성적, 어학능력, 수상실적, 교내/외활동 ③ 동점자 처리기준 : 학업성취우수성→활동우수성→발전가능성 ④ 국제학부 지원 시 TOEFL 110점 이상 필수 예상

이화여대의 경우 한국외대와 달리 전공별 성적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세대에서의 인지도가 워낙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SKY급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함께 지원을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합격과 추가합격의 성적편차가 크게 형성되는 대학**입니다. 단, 중앙대나 한국외대와 달리 활동실적보다는 수치화된 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1,2에 편입한 일반고교 학생 기준 최소 4.0 등급 이내의 내신과 더불어 각각 SAT, AP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아카데미에**

서는 6월부터 이화여대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국민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100%

특이사항
① 학업능력 및 활동증빙 10건 20매 이내 제출 ② 각 활동별 50자 이내로 내용 기재 ③ 교내·외 실적 제출 가능, 졸업이후 실적 제출 불가능

서류형 대학 지원자들이 안전지원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대학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연계열(이과) 지원자들은 문과와 달리 9월 수시에서 유리한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소 애매한 성적대의 이과 지원자들은 가급적 6회의 지원기회 중 하나를 안전지원으로 국민대 또는 면접형 대학에 지원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히 이과 학생들은 대학의 브랜드보다, 전공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SAT

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시아 명문대(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대학을 Plan B로 두고 입시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권장 할 만 한 방법이겠으나, 아시아 명문대 지원의사가 없는 학생이라면 설령 입학 이후 반수나 편입을 계획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지원할 대학’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매년 배치컨설팅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단순히 대학의 이름에만 욕심을 내다가 불가피하게 재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항상 있습니다. 대입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입니다. 브랜드 보다는 전공에 집중하여 입시설계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한 아카데미에서는 6월부터 국민대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송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발단계	서류
일괄합산	100%

특이사항
① 평가항목 : 학업역량40 + 활동역량30 + 잠재역량30 ② 활동증빙목록표 10건 20매 이내 제출 ③ 각 활동별 200자 이내로 내용 기재 ④ 교내·외 실적 제출 가능, 졸업이후 실적 제출 불가능

국민대와 함께 서류형 대학 지원자들이 안전지원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대학이지만, 전공별로 경쟁률 편차가 크다는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IT대학은 전통적으로 대학 내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와 규모를 갖고 있는 단과대학이기도 합니다. 단과대학 내 소속된 학부들 모두가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만큼, **안전지원의 목적으로 지원할 때 전공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각 활동별로 200자 이내로 제출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인성적에 맞추어 지원하기보다는 고교 재학기간의 활동실적에 대한 코드에 맞추어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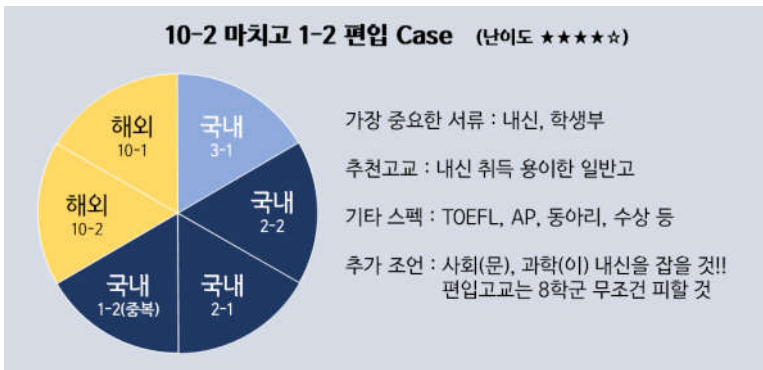
좋겠습니다. 세한아카데미에서는 6월부터 송실
대 서류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제 3장.

귀국 후 시기 별 서류특례 준비 방법

국제학교나 특목고 등 다양한 편입 옵션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주소지 내 일반고 편입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학생이 처한 환경이나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에 걸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모든 입시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세한아카데미가, 그리고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어떠한 학생도 절대 저평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몰라서, 전략이 부족해서 또는 잘못된 상담을 잘못 받아서 실력만큼의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일반고에 편입한 이후에는 각 시기별 상황별 전략이 모두 다릅니다. 본 가이드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되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개인별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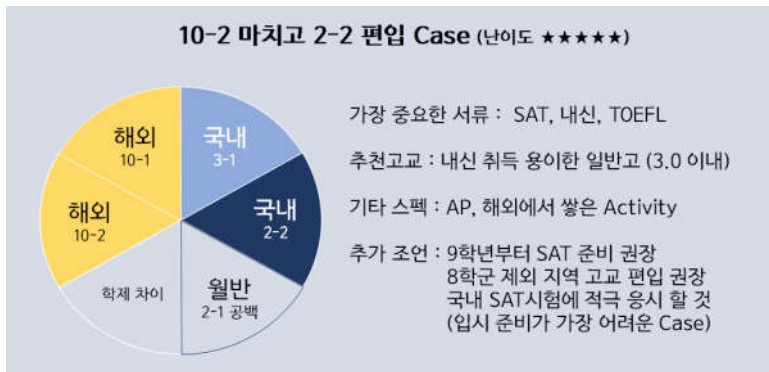
구분	국제학교 편입 목표 실적	일반고 편입 목표 실적
학교 성적	4.0만점 기준 최소 3.8 이상의 GPA 국어/국사 102시간 이수로 학력인정	주요과목 최소 내신 4.5등급 이내 동아리 기반의 전공 관련 학생부 구성
기타 서류	SAT를 기본으로 학교 유형에 따라 AP 또는 IB의 고득점 획득	가급적 SAT 1400점 이상 전공 관련 AP 1~5과목 최소 4점 이상



1-2학기 편입은 한국에서 총 7번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만큼 한국 내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10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취득한 SAT 성적이 1400점 전후라면 내신이 다소 뒷받침 되지 못해도 SAT를 함께 준비해볼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절대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非강남권 + 국공립 + 남녀공학’이라는 공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서류특례를 준비하는 모든 중도귀국생들에게 AP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스펙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 과목의 AP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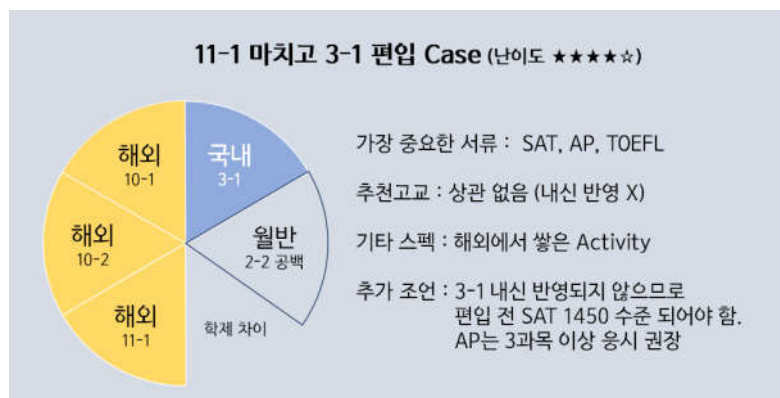
고득점은 중간에 재학국가가 달라지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미교육위원단을 통해 접수 및 응시를 하며 1년에 한번(5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겨울방학 또는 3~4월 1학기를 활용해서 5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학기 편입은 일반적인 케이스이면서 동시에 해외에서의 준비와 한국에서의 준비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첫째로, 2-2학기에 편입하자마자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편입 이전부터 미리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맞는 사회 또는 과학 내신을 미리 준비해서 한국내신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9학년부터 미리 SAT를 준비해서 한국 귀국 전 최소 1300점 수준의

국에서의 준비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첫째로, 2-2학기에 편입하자마자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편입 이전부터 미리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맞는 사회 또는 과학 내신을 미리 준비해서 한국내신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9학년부터 미리 SAT를 준비해서 한국 귀국 전 최소 1300점 수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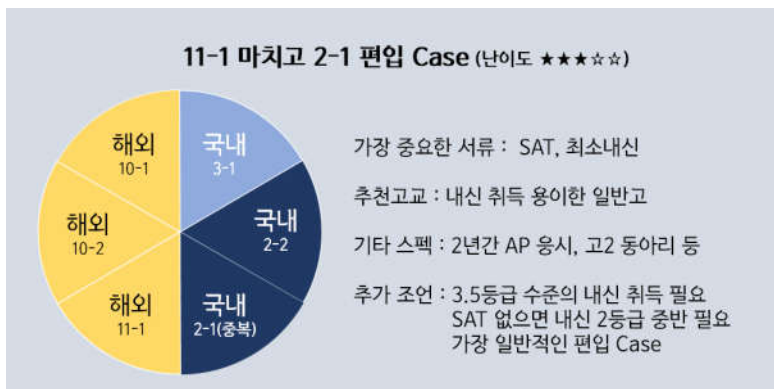
실력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편입 이후 8월, 10월, 12월, 3월, 5월 등 최대 5번의 SAT 응시기회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100점 이상의 점수상승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3 5월에 실시되는 AP역시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서두에 설명했듯이 3-1편입은 이론상으로는 국내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연세대의 경우 서류제출 시 3-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를 목표로 하거나, 반수 혹은 재수와 수시까지 고려하는 학생은 3-1학기 내신도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학생부나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실적을 중심으로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SAT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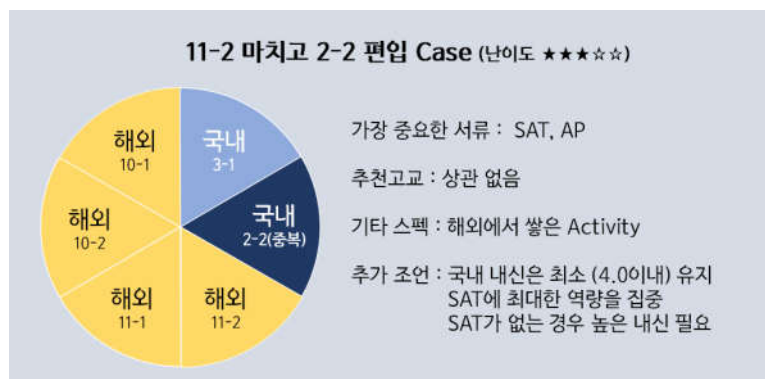
했다면 귀국 이후 3월, 5월 시험에서 성적을 완성 할 수 있으며 IB를 하는 학교였다면 IB과정에서 이수하던 과목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목의 AP를 고3 5월에 응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모자란 GPA와 한국의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합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내신이라는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에 난이도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SAT와 AP에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학기를 발생 시켜서 입시를 치루는 나이가 한 살 늦어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졸업하고 재수하는 것 보다 1년 늦어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11학년 1학기까지 해외에서 SAT나 AP(또는 그에 준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 편이며 귀국 이후 한

국에서 내신을 취득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非강남권 + 국공립
 + 남녀공학’ 공식을 적용해서 편입학교를 선택
 하고 최소내신 관리와 SAT 및 AP 중심의 스
 펙관리가 동반된다면 높은 입시성공률을 거둘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편입 이후에도 2번의
 AP시험 기회와 7번의 SAT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입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2-2학기에 편입한
 특례생이 서류중심
 의 입시를 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것

은 SAT와 AP입니다.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충
 분히 다니면서 관련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6월 초에 11학년을 마치고 9월에 2
 학기 편입 전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
 는 시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SAT와
 AP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반영되는 한국
 의 내신은 2-2 한 학기뿐이므로 최소 4.5등급

이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SAT에 최대한 역량을 쏟아서 입시를 풀어가는 전략이므로 사실상 편입하는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8학군 등 내신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 등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편입 이후 12월과 3월의 SAT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며 고3 5월에 응시할 AP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귀국 후 서류특례 공통사항

첫째, 무조건 지필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번의 중간·기말고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적표를 지참해서 세한에 방문하시면 서류특례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지필 준비를 권유해 드립니다. 서류준비를 하다가 지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필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예비 고3 겨울방학(1월)에도 충분합니다. 고등학교의 국영수 내신 시험범위에 지필시험 범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한의 목표는 학원 수강이 아닌 대입성공입니다.

둘째, 발령임기 만료로 졸업 전 귀임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SAT를 준비하십시오.

IB나 AP 또는 그 외의 국제학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수업만 따라가다가 귀국 후 SAT를 준비하려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서류특례의 Key는 내신과 SAT입니다. 편입학교는 미리 결정할 수 없어도 SAT는 미리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TOEFL은 SAT를 끝내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과는 110점 이상, 이과는 105점 이상의 성적이면 평가에 큰 편차를 두지 않는 추세입니다. 고등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영어시험은 SAT입니다. 굳이 하위호환이 되는 TOEFL을 위해 앞서서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TOEFL은 SAT 이후에 하십시오.

넷째, 편입학교가 정해졌다면 EBS를 통해 편입 후 내신을 미리 대비하십시오.

EBS에서는 교과서별 1~2학년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 교과과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편입할 고교가 정해졌다면 교과서 출판사와 편입학기 진도 등을 미리 확인해서 주요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에 대한 내신을 미리 대비하여 편입 이후 바로 진행 될 중간/기말고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4장.

영어로 수업하는 日本 글로벌학부

현재 국내 취업난과 맞물려 취업과 성공이 될 수 있는 **일본G30 명문대 유학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해당 전공수업은 영어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선발 방법 또한 영미권의 명문대학이나 국내 명문대(서류전형) 선발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해외 명문대학들이 가을입학(9월) 모집전형만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명문대 G30 전형은 봄입학(4월)과 가을입학(9,10월) 모집전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국내 봄입학 7월의 재외국민 특례와 9월의 수시 전형의 지원과 함께 8~9월에 봄 입학 모집을 하고 있는 일본명문대 G30 전형을 동시에 지원 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대학	설치 전공 프로그램	필수 공인 성적
게이오대학	경제학, 환경공학, 환경정책	TOEFL + SAT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정치경제학부, 사회과학부, 문화구상학부, 이공학부	TOEFL + SAT (이공학부 AP 필수)
소피아대학 (조치)	국제교양학부, 이공학부	TOEFL + SAT (이공학부 AP 필수)
ICU (국제기독교대학)	자유전공(경영, 경제, 물리, 화학, 생물, 미디어, 문학, 심리학 등)	TOEFL + SAT
호세이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국제학부, 환경학부	TOEFL + SAT
릿쿄대학	국제교양학부	TOEFL
리츠메이칸	정보산업공학, 정책과학부, 국제관계학, 글로벌교양학부,	TOEFL
도시샤대학	국제교양학부	TOEFL
동경대학	동아시아학부, 자연과학부	TOEFL + SAT + AP
동경공업대학	글로벌과학공학부	TOEFL + SAT + AP
나고야대학	자동차공학, 응용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과학, 일본학	TOEFL + SAT + AP
교토대학	토목공학, 자유전공(대부분의 모든 전공 선택가능)	TOEFL + SAT (토목공학 AP 필수)
큐슈대학	이공학부, 농학부, 융합학부	TOEFL + SAT + AP

국내명문대와 동시지원 할 수도 있고 영어로 전공수업을 들으며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장학금 지원, 국내와 큰 차이 없는 학비 그리고 졸업 후 매우 높은 취업률이 선진국 유학으로서의 메리트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졸업 후 가장 높은 취업호황을 누릴 수 있는 동경과 교토의 수도권 사립명문대학들도 있겠지만 연간 600만원이 안 되는 학비로 유학 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 연구수준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지방의 국립명문대학들 또한 인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쟁률과 함께 합격자 성적 또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빠른 진학 선택과 준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형태의 지원방법을 선호하는 만큼 매우 까다로운 원서와 제출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한 아카데미 홈페이지 또는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록. 9학년 이전 중도귀국 시 외고/국제고 특례입학

최근 주재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중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와 대입 특례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만약 2021년 기준 G7(Y8) ~ G9(Y10)의 학생 중 최소 2년을 해외에서 재학한 학생들이라면 국제학교 재학경험을 통해 또래 학우들보다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입시에 특화되어 있는 특목고 특례입학을 노린다면 소중한 국제학교 재학경험을 대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고 특례입학도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에 비해 수학/과학의 실력이 다소 부족한 귀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의 장점을 활용한 외고/국제고 특례입학을 권장합니다.

외고/국제고 특례입학은 관할 시 교육청에서 자격심사를 먼저 받은 후에 아래 지원시기

에 지원하게 되는 형태이며, 반드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해서 최소 한학기를 재학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특목고/자사고 존치가 결정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입특례 입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1차발표	면접일	합격발표
12.10~12 경	12.14 경	12.24 경	12.28 경

[서울 소재 외국어고/국제고 고입특례 대상 학교]

학교	전형방법	모집	개설 전공	경쟁률
대원외고	2,3학년 영어내신+자소서+면접 <1단계> 영어 내신 (160) + 출결(감점) [정원의 1.5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160) + 면접(40) 2,3학년 국수영사 + 자소서 + 면접	5명	독/프/스/일/중/영	2:1
한영외고		5명	독/프/스/일/중/영	2.4:1
명덕외고		5명	중/영/독/프/일/러	2.6:1
대일외고		5명	프/독/일/중/스/러/영	1.2:1
이화외고		3명	영/프/독/중	1.67:1
서울외고		5명	영/독/프/중/일	0.8:1
서울국제고		3명	AP/SAT 과정 제공	4.33:1
경기외고		4명	영(IB)/중/일	2:1

고입특례 지원자격① (2년특례)

학생 재학기간 : 초등4학년(포함) 부터 중3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 일부 포함 2년 연속 재학 (비연속 3년) 후 서울소재 중학교 전·편입

부모 체류기간 : 부모 모두 최소 거주2년 + 실체류 1년 이상

자격심사 서류제출 : 중3-2학기 10.24(수) 까지 해당 중학교에 제출

※ 반드시 국내 중학교 3-1학기(3월)이나 2-2학기(8월)에 편입 해야 함.

고입특례 지원자격 심사 과정

- ①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에 자격심사 서류 제출 (학생 → 중학교 제출) (10.24까지)
- ② 1차 검토·제출 (중학교 → 지역 교육지원청 제출) (10.25까지)
- ③ 2차 검토·제출 (지역 교육지원청 → 서울시 교육청 제출) (11.2까지)
- ④ 서울시교육청 심사 및 결과 통보 (11.15 최종 발표)

⑤ 심사통과 이후 12월에 각 고등학교 별로
원서지원 (인터넷)

※ 상기 날짜는 2019학년도 기준이며, 연도에
따라 날짜가 1~2주 정도 차이 있음

재외국민 특례의 명가, 세한아카데미



전화문의 : 02)3453-3422

홈페이지 : www.sehann.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세한아카데미